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Digital sanctions: US seizes websites with alleged links to Iran-Venezuela gasoline trade

미국이 이란-베네수엘라 간 가솔린 거래에 관여되었다는 혐의가 있는 3개 업체의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시켰다고 보도됨. Mobin International, Sohar Fuel, Oman Fuel 등 3개 업체의 웹사이트는 현재 '국외 테러단체에 대한 지원 등의 이유로 차단'이라는 문구가 표기되고 있다고 보도됨. (TradeWinds)

Petrobras again pushes back deadline in deep-water rig tender off Brazil

브라질의 Petrobras가 deep-water rig 용선입찰 일정을 다시한번 연기 했다고 보도됨. Petrobras는 Campos 및 Santos 지역의 탐사개발(exploration & development)을 위해 최대 2기의 시추설비에 대한 용선입찰을 진행중이라고 알려졌으나 입찰 마감을 한 달 가량 연기한다고 밝힘. (Upstream)

SITC confirms orders for up to 12 feeder containerships

중국의 Yangzijiang Shipbuilding이 SITC International Holdings로부터 1,800TEU급 피더 컨테이너선을 6+6척 수주했다고 보도됨. 총 계약규모는 2.52억달러 수준이라고 보도됨. 확정계약분의 납기는 2022년이며 옵션분 6척은 2척씩 3회에 걸쳐 확정 수주할 전망이다이라고 보도됨. (TradeWinds)

대우조선, HMM 초대형 '컨'선 모두 인도

대우조선해양이 HMM사의 24,000TEU급 초대형컨테이너선의 마지막 7번째 선박까지 인도했다고 보도됨. 대우조선해양이 인도한 총 7척의 컨테이너선 모두 독자 개발한 최첨단 스마트십 솔루션 'DS4(DSME Smartship Platform)'이 적용됐다고 보도됨. 스크러버를 설치했으나 향후 LNG추진선박으로 전환가능하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현대로보틱스, 상하이 자회사 지분 현대중공업지주로부터 인수

현대중공업지주가 사업분할한 현대로보틱스에 현대로보틱스 상하이 자회사 지분 전부를 처분했다고 31일 공시함. 처분 주식수는 지분 100%이며 처분 금액은 141억7,900만원이라고 보도됨.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전에 사업분할할 때 못 가지고 간 지분을 가져간 것"이라고 설명함. (연합뉴스)

현대일렉트릭, 미국 풍력터빈 합의금 지불...7년 분쟁 마무리

미국의 풍력발전기 설치·운영사인 킹스턴 윈드 인디펜던스는 지난달 킹스턴타운에 설치된 풍력 발전기용 터빈 제조업체 현대일렉트릭으로부터 결함 발생 명목으로 675만 달러(약 79억원)의 합의금을 받았다고 밝힘.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현대일렉트릭이 킹스턴 윈드 인디펜던스와 지난달 합의를 마치고, 합의금을 전달했다"며 "합의금은 지난해부터 회계상 비용이 반영됐다"고 설명함. (더구루)